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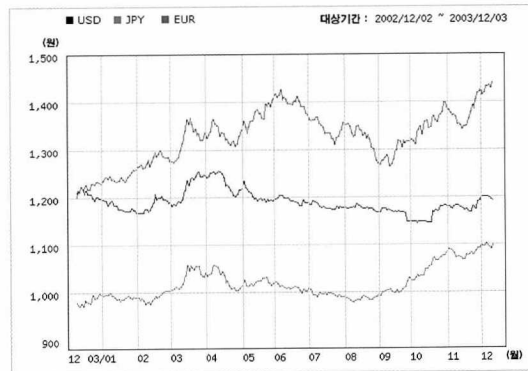
하반기부터 경기 상승국면 전환

911테러 여파, 미국 월드컴사의 회계부정, SARS, 이라크 전쟁, 일본 경제의 장기 디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는 2003년 하반기 끝부터 다소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비록 예상보다 일찍 끝났으나 국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미국을 전후의 불안정한 수렁으로 이끌고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미국 경제는 2003년 하반기부터 성장 커브로 전환하여 약 3% 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2004년은 상당한 경기상승 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라크와 북한의 문제가 미 행정부에서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는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이다.

장기적 경제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은 중국 및 여타 시장에 대한 수출 호조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한국경제가 겪었으며 아직도 정리가 끝나지 않은 동일한 문제인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개편을 이룬 시일 내에 해결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일본의 금융산업이 신속한 개편의 과정을 거치든 또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든 이는 새로운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여전히 일본 경제의 활력을 빼앗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둔화된 성장률을 상당기간 지속하고 있는 유럽은 높아 가는 실업률을 회복할 전기를 마련치 못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의 동인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유로화의 강세에 따른 해외경쟁력 약화와 유럽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 경제가 재정 약화, 강성 노조의 영향, 높은 실업률 등 장기적인 침체 양상을 보



이고 있어서 2004년 경제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긍정적인 모습은 비록 그 효과가 일시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인원감축, 사업부문의 정리와 같은 상당한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결과는 2004년 하반기부터 경쟁력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에 기인한 유로화의 강세 역시 미국경제의 회복국면 진입과 더불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중국은 여타 다른 경제블록과 달리 내수 및 수출로 인한 멈출 수 없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 여부가 중국 경제에 일정한 영향을 주겠지만 빠른 속도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국은 2004년에도 전년과 같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세계 경기가 이



미 바닥을 지나 완만한 상승 곡선 위에 올라섰고 2004년에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전망하는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

2004년도 세계 인쇄 산업은 드루파2004, 유로화의 움직임 및 중국의 인쇄시장으로 전망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바 대로 지난 해 매우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대대적 구조조정이란 수술을 마친 주요 인쇄설비 제작회사들은 금년 5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인쇄 산업 박람회인 드루파를 전환점으로 마케팅 분야에 총력을 다해 이를 판매에 연계하고자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인쇄 회사에 신규 인쇄설비의 도입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며, 본격적으로 디지털화된 인쇄 설비 및 인쇄공정관리 솔루션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세계의 인쇄 산업은 2003년에 비해 활력 있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드루파2004는 진정한 CIP4를 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프리프레스, 프레스 그리고 포스트프레스로 이어지는 전체 인쇄공정을 하나로 관리하는 워크플로우가 더 이상 미래의 것이 아님을 확실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에 적합한 기술 개발을 선도한 만로랜드 등 유럽의 인쇄설비 제작업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되고 이는 판매와 연결될 것이다. 또한, 유럽과 북미의 산업규모 인쇄회사들이 직접 경험한 인쇄업종에 적합한 특별한 ERP 성공사례를 드루파 2004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유로화 강세는 신규 인쇄 설비 공급의 약재로 작용하여 유럽의 인쇄설비 공급회사는 가격경쟁력 면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유로화 강세는 2004년에도 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

으나 유로화의 강세로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EU는 유로화의 하향 안정을 위한 방법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유로화의 강세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맞물려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 경기의 회복기조는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찾을 것이다. 또한 유로화의 강세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유럽의 인쇄설비 제작회사들은 드루파2004를 활용하고자 나름대로의 타개책을 내놓을 것이다.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에서 언급했듯이 매년 거듭하는 큰 폭의 수출 신장세와 확대되는 내수시장으로 빠른 성장을 구가하는 중국은 여타 경제블록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진 낮은 인건비는 더 많은 시장으로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는 인쇄 산업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내 인쇄 산업도 현지투자, 중국 인쇄설비의 수출 등으로 산업간 교류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인쇄설비 제작회사에게 있어 중국은 여전히 상당한 구매력을 가진 시장으로 계속 남게 될 것이다.

이밖에 중동 및 북한을 둘러싼 갈등, 달러 약세, 위안화의 평가절상 여부와 같은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고 있으나, 미국 경제가 주도하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의 흐름은 2004년을 지난해와는 다른 희망적인 전망을 품게 하며, 이러한 전망과 드루파 2004를 통한 신기술의 소개는 전 세계 인쇄산업계에 2004년을 성장의 한 해로 기록하게 할 것이다.



〈공수일 · 만로랜드크로리아 고객지원부 이사〉